

시 험 의 범 칙

1

【 발문-선지 】 유형

출제 빈도: ★☆☆☆

정답 접근성: ★★★★★

국어 시험에서 지문을 읽지 않고 【발문-선지】 만으로 문제가 풀리기도 한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영수의 성격’ 으로 적절한 것은?

- 지문 전체 생략 -

- ① 낮을 잘 가린다. ② 가족이 많다.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키가 매우 크다. ⑤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

※ 지문 없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국어 시험은 모든 과목 중에서 지문이 가장 많고 길다. 그만큼 지문을 의지하여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 책의 첫 문제부터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문제 풀이를 하다가 간혹 지문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문을 생략한 문제는 처음일 것이다. 중요한 건 위 문제는 10초안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먼저 출제자가 묻는 말인 **발문**부터 보자. **발문**이라는 것은 해당 지식을 알고 있는 자(출제자)가 모르는 자(수험생)에게 묻는 말로, 모르는 자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과는 다르다.

Q. 위 글에 나타난 ‘영수의 성격’ 으로 적절한 것은?

발문의 핵심 정보인 ‘영수의 성격’ 과 관련성 있는 **선지**(선택지의 줄임말)를 살펴보자.

선 지	사람의 성격
① 낮을 잘 가린다.	☞ 사람의 성격에 해당
② 가족이 많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④ 키가 매우 크다.	
⑤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	
	☞ 사람의 성격이 아님

선지 ①만이 사람의 성격으로 발문의 핵심정보인 ‘영수의 성격’ 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는 그 사람의 내·외적 상황이지 사람의 성격을 직접 나타내는 말은 안 된다. ②~⑤는 발문 핵심의 최소 정보인 ‘성격’ 에도 해당하지 않아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문을 확인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①이 답이 된다.

위 문제가 정상적인 형태가 되려면 ‘성격’ 을 나타내는 선지가 최소 하나 더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것이 지문에 나와 있는 영수의 성격인지 선택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지문 없이 발문과 선지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국어 시험에서 종종 등장하는 **【발문-선지】** 의 유형이다.

발문-선지의 법칙

- 1) 발문에서 정답의 조건을 분석한다.
 - 2) 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선지를 확인한다.
 - 3) 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선지가 1개이면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은 100% 이다.
-

지금까지 국어 시험을 보면서 위와 같은 문제 유형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 문제 풀이 감이 좋아서? VS 문제 자체가 영성해서?

영성한 문제라면 위 경우는 저자가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 국어 시험에서 지문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었다.

01 위 글을 읽고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05년 6월 평가원 |

- ① 자격루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보정했을까?
- ② 자격루는 언제까지 국가의 표준 시계로 사용되었을까?
- ③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 주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 ④ 조선 시대의 왕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했을까?
- ⑤ 만 원짜리 지폐에 자격루 그림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 항상 발문을 먼저 보자

왜냐하면, 수능 국어영역은 [지문 + (보기) + 발문 + 선택지]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수험생이 먼저 봐야할 것은 [발문 ⇒ (보기) ⇒ 선택지 ⇒ 지문] 인데 이는 읽어야 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문을 가장 먼저 봐야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평소 문제풀이에서 접했던 발문 유형을 수능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발문 유형에 따라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거나 긴 지문 속에서 정답의 단서가 될 위치를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위 문제는 지문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기에 지문을 아예 생략 했다. 위 문제의 발문을 분석해 출제자는 수험생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보자.

발문 분석	답의 조건
A 위 글을 읽고	☞ 지문(위 글)과 관련성을 지녀야함
B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성을 지녀야함
C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할 때	☞ 심화(정도가 깊은)학습과 관련성을 지녀야함
D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 질문형태 혹은 그런 의도의 내용이어야 함

E 가장 적절한 것은?

☞ 상대적으로 최선 부합(적절)형 이어야 함

두 줄도 안 되는 문장에서 정답이 되기 위해 5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단 A는 지문이 없으니 통과. 다음 B, 각 선지가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① 자격루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보정~	☞ 자격루 원리와 관련 (정답)
② 자격루는 언제까지 국가의 표준 시계로 사용~	☞ 자격루 표준 시계의 사용 시기 관련
③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 주는 방법은 무엇~	
④ 조선 시대의 왕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	☞ 자격루 원리와 직접 관련 ×
⑤ 만 원짜리 지폐에 자격루 그림이 들어간 이유~	

‘**자격루의 원리**’에서 ‘**원리**’(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의 의미가 선지 ①의 자격루 오차 보정(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과 관련이 있다. 즉,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하는 데(보정)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②는 자격루 표준 시계의 사용 시기와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③~⑤는 ‘**자격의 원리**’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

정답은 위 5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B 자격루 원리)도 만족하지 못하는 선지 ②~⑤는 당연히 정답에서 제외되며 ① 만이 답이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문은 물론 발문의 나머지 조건을 고려할 필요 없게 된다. 만약 ①이 다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답이 없는 문제가 된다. 생략된 지문을 확인한 실제 답도 ①이며 발문의 5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도입 문제처럼 **【발문-선지】의 법칙 유형으로 발문과 선지만으로 답을 100%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위 문제는 발문 핵심어인 ‘**원리**’의 사전적 뜻을 정확히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원리**’가 다섯 선지들의 핵심 낱말 중에서 ‘**보정**’과 가장 관련된다는 것을 언어적 직감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적 직감은 지문을 읽고 풀

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쉽고 빠르게 정답을 찾아 낼 수 있다.

※ 출제자의 의도인가? V S 출제자의 실수인가?

☆ 명백한 실수이다

위 문제는 결국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된 답을 고르시오.** 라는 단순한 문제가 되었다. 출제자가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을 요구했다면,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된 선지가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이 심화학습, 기본학습으로 선지를 구성해야 모범적인 된 문제가 된다.

- ① 위 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기본학습** 질문 유형 ⇒ 오답 (매력:★★☆)
- ② 위 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 유형 ⇒ 정답

☆ 실수가 아닌 의도된 것이다

수능을 포함한 모든 과목의 객관식 시험에는 권고하는 출제지침이 있다. 출제자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객관식 출제 지침 中

“한 문제의 발문에서 묻는 바는 한 가지로 하고
두 가지를 묻는 경우는 두 문제로 출제할 것을 권함”

이는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단일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르면 위 문제의 의도는 발문 내용(자격루의 원리) 중 낱말(원리)의 뜻을 선지에 적용하는 것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문은 단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두 의견 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출제자는 의도적으로 출제지침을 어겨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매력 오답이 구성되어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린다.

< 매력 오답 구성 >

정답: ⑤ 위 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 유형	
① 위 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형태에 대한 기본학습 질문 유형	☞ 오답 (매력:★☆☆)
② 위 글과 관련 없는 자격루의 원리 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 유형	☞ 오답 (매력:★★★★)
③ 위 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 에 대한 기본학습 질문 유형	☞ 오답 (매력:★★☆)
④ 위 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형태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 유형	☞ 오답 (매력:★★☆)

생략된 지문을 통해 정답의 근거를 확인해 보자.

【 지 문 & 해 설 】

(가) 1434년 7월 1일. 조선 왕조는 자격루(自擊漏)라고 불리는 자동 물시계를 국가의 새로운 표준 시계로 채택했다. 세종의 명을 받은 장영실은 **더 정확한 물시계를 만들기 위해** 시각을 측정하는 잣대의 길이를 4배 가량 키워 눈금을 세밀하게 새겨 넣고, 물받이 통을 비울 때도 연속적으로 시간을 잴 수 있게 통을 2개로 늘렸다. 여기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 주는 장치를 더하여 자격루를 완성하였다.

(나) 자격루는 시각을 측정하는 물시계, 물시계에서 측정된 시간을 소리로 바꿔 주는 시보 장치, 물시계와 시보 장치를 연결해 주는 방목(方木)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만 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물시계 부분은, 물을 공급하는 항아리인 파수호에서 물을 흘려 보내면 물받이 통인 수수호에 물이 고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수호에 띄워 놓은 잣대가 고인 물의 부력에 의해 떠오르면 잣대에 새긴 눈금을 읽어 시각을 알아낸다. 따라서 **물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수호를 튼튼하게 제작하여 물이 가득 찼을 때 받는 수압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 실제 자격루의 수수호는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발문에 제시된 ‘자격루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지문 (가), (나)에 선지 ①의 ‘자격루의 오차를 보정’ 하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있다. 이들은 자격루의 원리를 활용한 방법으로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의 근거가 된다.

02 ‘신발 선택’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의 개요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07년 9월 평가원 |

- ① ‘I-1. 건강에 대한 최근의 관심’과 ‘I-2. 신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순서를 바꾼다.
- ② ‘II. 신발 선택의 일반적 기준과 문제점’을 ‘II. 신발 선택의 합리적 기준’으로 바꾼다.
- ③ ‘II-2-다. 교통비 증가’를 삭제한다.
- ④ ‘III-2-다’를 새로 설정하여 ‘혈액 순환 촉진’을 추가한다.
- ⑤ IV를 ‘결론: 걷기 운동의 생활화’로 바꾼다.

발문에 주제·글감 제시 ⇒ 선지와 의 관련성 = 정답의 기준

발문에 주제·글감이 있다면 이것과 선지와 의 관련성으로 대부분 문제가 쉽게 풀린다.

발문의 글감(신발 선택)과 선지 ③의 교통비 증가는 서로 관련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의 ‘II-2-다’에 교통비 증가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기>의 개요를 따로 보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II-2-다’에 교통비 증가는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선지를 더 확인해 볼 필요 없이 ③이 정답이다.

⌘ 혹시 발문에서 ‘가장’ 이라는 말 때문에

‘신발 선택’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의 개요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으니 선지 ③ 이외에 적절한 것이 또 있어 그들 중 정답으로 더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선지도 <개요>와 함께 천천히 살펴봐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개요**는 특성상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모두 수정해야 한다. 많이 잘못 되었다고 수정하고 조금 잘못 되었다고 수정 하지 않는 일은 없다. 수정할 대상은 동등한 위치로 모두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선지 ③의 수정방안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나머지 선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

⌘ 출제자의 실수!!!

이 문제의 발문은 잘못되었다. 발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 답을 요구하는 가장은 다음의 객관식 출제 원칙에 따라 빠져야 한다.

객관식 출제 원칙 中

“발문과 선지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빼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하도록 한다.”

위 문제처럼 발문에 **주제·글감**이 제시되면 그 **주제·글감과 선지와의 관련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라. 대부분 정답은 여기에서 나온다. 다음은 그 유형들을 모은 것인데 정답 선지의 내용은 연습문제 편에서 확인해 보자.

‘중고 물품 교환 활성화’를 주제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1년 6월 평가원)

☞ 정답: **중고 물품 교환 활성화와 관련 없는 것.**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가)~(다)를 통해 글을 이끌어 낸 뒤 관련 자료를 더 찾으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0년 6월 평가원)

☞ 정답: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의 처리’와 관련 없는 것.

지역 신문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글을 투고하고자 한다. <보기>의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7년 9월 평가원)

☞ 정답: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 없는 것.

“달리기는 다른 운동보다 장점이 많다.”라는 주제로 설득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에 관한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4년 9월 모의수능)

☞ 정답: “달리기는 다른 운동보다 장점이 많다.”와 관련 없는 것.

03 ㉠은 구체적인 문맥에서는 선택 가능 항이 매우 제한되기도 한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2004년 수능 |

- ① ()는 덩치가 매우 큰 편이야.
- ② 철수는 ()을/를 많이 먹었어.
- ③ 철수는 어제 ()에서 공부를 했어.
- ④ 철수는 그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 ⑤ 철수는 오늘 식물원에서 ()꽃을 보았어.

위의 문제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험의 공식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한다.

발문의 핵심 정보 ⇒ 선지와와 관련성 = 정답의 기준 !

먼저 발문의 핵심 정보를 찾아보자.

㉠은 구체적인 문맥에서는 **선택 가능 항이 매우 제한되기도 한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 정보는 **선택 가능 항**으로 각 선지의 ()안에 알맞은 말을 생각나는 대로 넣어보자. 그러면 선지 ④ **나이가 너무**에 어울리는 말이 ‘**많다, 적다, 어리다**’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④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문의 핵심정보와 관련성을 가져 정답이 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거의 무제한이다.

- ① (‘**철수, 영화, 엄마, 아빠.....**’)는 덩치가 매우 큰 편이야.
- ② 철수는 (‘**밥, 빵, 과자, 우유.....**’)을/를 많이 먹었어.
- ③ 철수는 어제 (‘**학교, 집, 독서실, 커피숍.....**’)에서 공부를 했어.
- ⑤ 철수는 오늘 식물원에서 (‘**빨간, 파란, 시든, 예쁜.....**’)꽃을 보았어.

이번 문제는 이전과는 달리 배경지식 없이 **언어적 직감**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출제 근거가 되는 문법적 배경지식은 있다. 그것은 다른 문장성분과는 달리 서술어는 **그에 어울리는 대상을 선택**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다’(서술어)는 ‘눈’(대상)을 ‘다물다’(서술어)는 ‘입’(대상)을 선택 한다.

눈을 감다(○), 입을 감다(×)
눈을 다물다(×), 입을 다물다(○)

이를 서술어와 대상의 『**선택-제한 관계**』 라고 한다. 이에 따라 선지 ④ 철수는 그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서술어)는 ()안에 들어갈 말이 ‘**많다, 적다, 어리다**’ 정도로 **제한** 되어있는 것이다.

※ 그럼 출제자는 무엇을 근거로 위 문제를 만들었을까?

⇒ 언어적 직감 VS 국어의 배경지식

당연히 배경지식을 근거로 만들었다. 하지만 정답을 찾아낼 **언어적 직감**의 수준이 낮아 배경지식을 생각하기도 전에 쉽게 문제가 풀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습득한 **언어적 직감은 정답을 찾는 직접적인 열쇠가 되기도 한다.**

※ 수능은 주관식이 아니다

수험생이 문제의 문법적 배경지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능은 주관식이 아니라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문법적 배경지식이 있는 문제이지만 객관식 문제이기에 **언어적 직감**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문제의 난이도가 그만큼 쉽다는 뜻도 된다.

※ 남들과 똑같이 쉬운 문제라면

남들과 똑같이 쉬운 문제라면 남들보다 1초라도 더 빨리 풀어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는 배경지식을 떠올리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언어적 직감**으로 빠르게 문제를 푼 경우이다. 그래서 평소에 다양한 독서와 사전을 이용한 낱말 학습으로 언어의 감을 쌓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 지문을 통해 정답을 확인해 보자.

시 험 의 범 칙

2

【 선지 오류 】 유형

출제 빈도: ★☆☆☆

정답 접근성: ★★☆☆

국어 시험에서 선지 자체가 국어 혹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잘못된 경우가 있다. 이때 문제가 부정형 발문일 경우 잘못된 선지가 답일 가능성은 거의 100 %이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 다음 글에 나타난(생 략) ?

- 지문 전체 생략 -

- ① 수업 직전에 예습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② 집중이 잘 안되면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좋다.
- ③ 항상 뚜렷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 ④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공부한다.
- ⑤ 한 과목보단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 발문의 일부도 생략

지문은 물론 첫 번째 시험의 법칙인 【발문-선지】에서 강조한 발문의 핵심 정보마저 없다. 정답은커녕 정답으로 예상되는 것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발문이 긍정형인지 부정형인지 즉, 적절한 것을 원하는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원하기도 알 수 없다. 다행히 선지 내용은 온전하다. 일단 이것이라도 살펴보자.

① 수업 직전에 간단히 예습 하는 습관을 갖는다.	
② 집중 이 잘 안되면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좋다.	☞ (상 식 적 으 로) 맞은 말
③ 항상 뚜렷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공부 한다.	
④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공부 한다.	
⑤ 한 과목보단 두 과목 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 비상식적

각 선지의 핵심어(예습, 집중, 공부)를 보니 위 지문은 ‘학습’을 제재로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혹시 이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선지 ①~④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⑤는 비상식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문이나 발문의 내용이 무엇이든, 얼마나 있든, 심지어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선지의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선지 ⑤, 한 과목만 집중해도 그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시도조차도 어렵고 집중을 방해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안다. 주변에 국어와 수학을 각각 한 장씩 넘겨가며 공부하는 모습을 본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답이 선지 ⑤로 예상되며 발문은 ‘효율적인 학습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어울린다. 다만 지문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⑤를 답으로 100%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능에서 부정형(적절치 않은) 발문에 선지가 일반상식을 벗어난다면,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100%에 가깝다.

선지 오류의 법칙

- 1) 부정형 발문임을 확인한다.
 - 2) 선지를 배경지식과 일반상식으로 확인해본다.
- ▶ 배경지식이나 일반상식으로 잘못된 선지는 100 % 정답이다.
-

수능은 초·중·고 국어교육과정의 끝판 왕격인 시험이다. 위와 같이 상식적으로 간단히 풀리는 문제가 과연 나올까?

01

| 2007 9월 평가원 |

<보기>의 그림을 보면서 ‘효과적인 독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재생’을 ‘독서’라고 가정하고 연상했을 때, ①~⑤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빨리 감기: 독서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건너뛰며 읽을 수도 있다.
- ② 되감기: 다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읽기도 한다.
- ③ 정지: 독서를 하다가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만둘 수도 있다.
- ④ 일시 정지: 독서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읽기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
- ⑤ 녹음: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앞 선 도입 문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비록 모의수능이지만 위와 같이 간단히 풀리는 문제가 이미 출제되었다. 상식적으로 선지 ⑤가 적절하지 않다.

⑤ 녹음 :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이유는, 뇌가 두 가지 활동(독서+음악듣기)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한 가지 활동(독서)을 하는 것이 더 집중도 잘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혹시 ‘나는 음악을 들을 때 독서가 더 잘되던데’ 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책만 보기에 집중이 안 되서 음악이 필요한 것이다. 집중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독서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선지오류】 유형의 문제는 선지 자체의 오류도 답의 근거가 된다

【선지오류】 유형에 관련된 출제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객관식 출제 지침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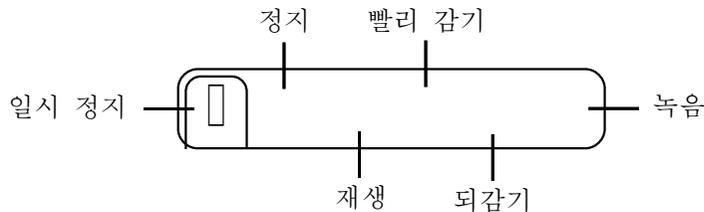
“지문 혹은 발문과 상관 없는 선지 자체의 내용 오류로 인해 정답의 힌트가 되지 않게 주의한다.”

출제자는 지침을 준수하며 지문을 통한 수험생의 능력 평가를 의도 하였으면 최소한 선지 자체의 내용을 오류 없이 만들어야 한다.

※ 지문 해설 출제자의 실수인가? V S 의도된 오류인가?

출제자의 의도된 오류에 가깝다. 왜냐하면 **선지의 오류**를 잡아내는 배경지식도 국어 능력의 측정 대상이라고 출제자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선지자체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은 국어 배경지식과 일반상식의 정도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다. 위의 문제는 낮은 상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이다. 생략된 그림 자료와 함께 정답을 다시 확인해 보자.

【 지 문 & 해 설 】



⑤ 녹음 :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정답)

그림은 음악재생 컨트롤 메뉴로 독서하기를 음악듣기로 비유한 것이다. 음악 감상 중 선지 ①의 **빨리 감기**는 독서에서 읽지 않은 다음 부분을 미리 보는 것으로, ②의 **되감기** 기능은 독서에서 읽은 부분을 다시 보는 것으로 비유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악이 아니면 ③처럼 음악을 정지 시킬 수 있고 잠시 가사를 생각해 보거나 메모를 한다든지 하여 음악을 ④처럼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이어서 들을 수 있다. 이는 독서를 아예 그만 두거나 잠시 멈추는 것으로 비유된다. 하지만 ⑤의 녹음은 음악 듣기가 아니다. 이는 외부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저장하는 것이므로, 독서하면서 음악 듣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는 ‘원형적 심상’을 설명하는 상징 사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나룻배: ‘행인’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 불: 삶을 지탱해 주는 상승의 에너지로서 사랑의 열정을 환기한다.
- ③ ㉢ 물: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 ④ ㉣ 나무: 우리’가 함께 선다는 표현으로 보아 초월과 상승의 욕구를 가진 인간의 형상으로 읽어 낼 수 있다.
- ⑤ ㉤ 하늘: ‘불’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적 고뇌가 승화된 정신적 경지를 표상한다.

✳ 지문 해설 배점이 높은 중요한 문제도 쉽게!!!

2003년 수능 당시 높은 배점(3점)의 문제답게 지문은 물론 <보기>까지 해석해야 답을 찾도록 출제자는 의도하였다. 하지만 **【선지오류】 유형**이기에 지문과 <보기>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선지 ③을 문학적 배경지식이 아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③ 물: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나무는 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물이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무를 살리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생략된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 <보 기> —

- 작은 배 :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수단. 부활과 재생의 요람.
- 불 : 수직적, 상승의 에너지. 공격적인 남성. 인간의 생명. 사랑. 육체의 파괴와 소멸.
정화와 재생
- 물 : 수평적, 하강, 모성 혹은 여성. 죽음. 정화와 재생. 순환. 시간의 흐름.
- 나무 : 인간의 형상. 인간의 상승 욕구. 초월의 의지. 크고 넉넉한 인격.
- 하늘 : 공간의 영원성. 고고한 정신. 신(神). 순결. 무(無). 부재(不在).

‘물’은 재생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죽은 나무뿌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니 이를 적시는 물도 단순히 부정적인 상징(죽음, 소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출제자의 함정에 걸린 것이다.

시 험 의 범 칙

3

【 보기-선지 】 유형

출제 빈도: ★★★★★

정답 접근성: ★★★★★

국어 시험에서 지문과 참고 자료인 <보기>가 함께 제시된 문제는 <보기>를 먼저 봐야한다. 【보기-선지】의 관련성만으로 지문 없이 문제를 대부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내용 중 <보기>의 관점과 가장 적절한 것은?

- 지문 전체 생략 -

| 보 기 |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어
- ② 너는 유행하는 옷은 입지 않는구나
- ③ 외모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 ④ 얼굴이 중요한 게 아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 ⑤ 저 잘생긴 남자는 마음도 착할 거야

위 문제는 지문은 물론 <보기>까지 봐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수험생들이 꺼려하는 유형이다. 위와 같은 문제 유형은 발문 ⇒ <보기> ⇒ 선지 ⇒ 지문 순서로 봐야한다. 왜냐하면 지문 없이 <보기>와 선지만으로도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문제 풀이 시, 시선 1순위인 발문을 <보기>와 함께 보자. 그리고 둘을 종합해 보자.

발문 ▶ 위 글에 나타난 내용 중 <보기>의 관점과 가장 동일한 것은?

+

<보기>의 핵심 ▶ 사람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



위 글에 나타난 내용 중 ‘외면 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 하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합된 발문으로 정답을 찾아보면,

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어	☞ 내면 외면 비교 없음
② 너는 유행하는 옷(외면)은 입지 않는구나	
③ 외모(외면)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 내면만 중시(추측)
④ 얼굴(외면)이 중요한 게 아냐, 마음(내면)이 중요하다.	☞ 외면 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
⑤ 저 잘생긴(외면) 남자는 마음(내면)도 착할 거야	☞ 외면을 먼저 고려

종합된 발문의 핵심정보(외면 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를 만족하는 선지는 ④이다. <보기>와 발문만으로 문제가 풀리기에 지문을 볼 필요가 없다. ④의 내용은 지문에 당연히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된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도 자주 등장하며 역시 지문을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세 번째 법칙인 **【보기-선지】의 법칙**이다.

보기-선지의 법칙

1) <보기>의 핵심을 파악한다.

2) <보기>의 핵심과 가장 관련성 있는 선지를 찾는다.

▶ <보기>의 핵심과 관련 있는 선지가 답일 확률은 80 % 이상이다.

01

| 2009 수능 |

[A]에 넣을 표현으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보 기 |

- 참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드러낼 것
- 지역 주민들에게 가져올 생활상의 변화를 제시할 것

- ①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벽화 그리기는 학교 축제와 마을 축제를 연계하기에 적합한 활동입니다. 앞으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더 많은 학생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 ③ 그동안 주민들은 마을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낙후된 생활환경 때문에 삶에 활력이 없었습니다. 벽화 그리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④ 벽화 그리기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축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교육적인 활동에 주민들이 함께한다면 그 의의가 더욱 클 것입니다.
- ⑤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협동 정신을 심어 줍니다. 개선된 생활공간에서 주민들은 서로 활발히 교류 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이가 될 것입니다.

【보기-선지】 유형의 전형적 문제로 최근까지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다. 지문 없이 답을 고를 수 있는 이유는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선지가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먼저,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분석해 보자.

A. ㉠ [A]에 넣을 표현 ㉠ 지문을 고려해야 함.

B.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 ㉠ <보기>를 고려해야 함.

선지가 발문의 A, B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답이 된다. 하지만 위 문제는 <보기>와 관련된 선지가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각 선지를 <보기>의 조건(㉠교육적 효과, ㉡생활상의 변화)에 따라 분석해보자.

① 우리~바랍니다.	두 개 다 만족 ×
② 학교 축제와 마을 축제를 연계	㉠교육적 효과 만족
③ 삶에 활력이~이런 문제들을 해결	㉡생활상의 변화
④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축제 문화를 만들어	㉠교육적 효과
⑤ 자부심과 협동 정신 활발히 교류 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	㉠교육적 효과 ㉡생활상의 변화

선지 ⑤만이 <보기>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지문을 통하여 문제를 풀게 했으면 ⑤와 같은 선지가 최소 하나는 더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지문까지 볼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 지 문 & 해 설 】

프로그램 명	공공건물 벽화 그리기
제안 단체	△△고등학교 미술반, 지역 문화 탐방반
<p>【제안 이유】 우리 ○○면에는 철이 벗겨진 벽을 그대로 배치한 건물이 많습니다. 특히 면사무소나 보건소는 지저분한 벽 때문에 건물뿐 아니라 주변 공간까지 황폐해 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공공 건물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자 벽화 그리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찾고 싶어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p>	
<p>【제안 내용】 벽화에는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주제와 소재를 결정해야 합니다. 축제 기간에</p>	

는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할 것입니다. **벽화를 완성한 후에는 이를 축하하는 행사도 마련**하려 합니다. 저희가 벽화를 그릴 건물을 지정해 주십시오. 또 이 활동을 마을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A】

- ⑤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협동 정신을 심어 줍니다. 개선된 생활공간에서 주민들은 서로 활발히 교류 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정답)

다음과 같이 지문의 내용과 <보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지는 ⑤이다.

지문: 벽화에는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담아야 합니다.

<보기>: 참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드러낼 것

☞ 선지 ⑤: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협동심을 심어 줌

지문: 벽화를 완성한 후에는 이를 축하하는 행사도 마련

<보기>: 지역 주민들에게 가져올 생활상의 변화를 제시할 것

☞ 선지 ⑤: 주민들은 서로 활발히 교류 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이게 될 것

✂ 문제의 배점에 주의하자

시험에서 최하위 점수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풀린다. 위 문제는 2009년 수능 당시 1점(최하위)짜리 수준이다. 이렇게 수능에서 최하위 점수 문제는 지문 없이 쉽게 풀리곤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상의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수능 문제 검증단 VS 수능 출제진

검증단: “지문도 안 읽고 답을 찾을 수 있으니 문제를 엉성하게 만든 거 아닌가?”

출제진: “꼭 지문을 통해서만 답을 찾아야 한다는 출제 지침은 없다.”

검증단: “그럼 단순한 지식측정이 되어 수능 평가 목적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출제진: “최하위 배점(1점) 문항으로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는 건 무리이다. 이는 전체적인 난이도 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다.”

02

| 2010 수능 |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의도이다. 기획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죽은 이와의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 ①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둘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 ② 외로웠던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 ③ 여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 ④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 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 관련성 여부가 정답의 관건이다!!!

다음과 같이 <보기>의 핵심과 선지 ②가 관련성을 갖는다.

| 보 기 |

죽은 이와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② 외로웠던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정답)

<보기>의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게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는 선지 ②와 관련성을 갖는다.

❖ 시험의 원리

답과 관련된 <보기>의 핵심은 80%가 마지막 문장에 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끝부분에 주제를 전달하는 미괄식 글쓰기의 습관 때문이고, 둘째는 처음이나 중간에 정답의 단서가 빨리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래서 수험생은 <보기>의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 풀이의 습관이다.

시 험 의 범 칙

4

【 선(先) 꼬리 】 유형

출제 빈도: ★★★★★

정답 접근성: ★★★★★

국어 시험은 지문의 끝 부분(단락)에 정답의 단서가 많다. 그래서 지문의 끝 부분(단락)을 먼저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 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1 지문이 생략된 문제를 풀려고 한다. 지문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면 다음 중 어느 부분을 보겠는가?

- ① 처음(머리) ② 중간(몸통) ③ 끝(꼬리)

2 생략된 지문의 정보 중에서 한 가지만 알 수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 ① 글의 제목 ② 글의 종류(장르) ③ 글의 주제
④ 글의 제재(글감) ⑤ 지은이 성향

답이 정해져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두 문제 다 선지 ③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먼저 2번 문제 선지의 특성을 살펴보자.

① 글의 제목	☞ 글의 전체내용을 압축, 대표하여 드러냄
② 글의 종류(장르)	☞ 글의 목적에 따른 형식 (설명문, 논설문, 소설, 시 등)
③ 글의 주제	☞ 글쓴이가 말하고자하는 핵심
④ 글의 제재(글감)	☞ 글에 사용된 재료
⑤ 지은이 성향	☞ 성격, 주변 환경 등

✳ 글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까?

선지 ③인 글의 주제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으로 글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이다. 주제를 알면 글의 전반적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의 주제가 ‘**급식을 3교시가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라면, 다음과 같이 글의 전반적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① 글의 제목	☞ ‘3교시 후 급식’
② 글의 종류(장르)	☞ ‘주장의 글’
④ 글의 제재(글감)	☞ ‘급식’
⑤ 지은이 성향	☞ ‘아침밥을 자주 먹지 못해 배가 금방 고풐.’

다음 1번 문제를 보자. 글에서 선지 ③의 **끝(꼬리)** 부분엔 무엇이 있을까?

① 처음	☞ 배경, 안내, 글의 목적, 흥미유발
② 중간	☞ 구체적 내용
③ 끝	☞ 정리, 요약, 강조

보통 글의 **끝 부분**은 이전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 한다. 그런 가운데 **글쓴이가 말하고자하는 핵심** 곧, **주제가** 드러난다. 물론 주제가 처음이나 중간 부분에서도 드러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끝 부분**에 많이 나타난다. 문학에도 장르별로 다음과 같이 핵심이 나타난다.

소설: 결말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주제가 드러남
 수필: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남
 시: 마지막 연 혹은 행에서 정서가 집약되어 드러남

※ 끝 부분을 먼저!!! 【선(先) 꼬리】의 법칙

수능은 긴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 데,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지문의 처음과 중간 보다는 **꼬리(마지막 단락)**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고 출제자가 주제와 관련하여 정답의 근거를 많이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문에서 꼬리 부분을 먼저 보는 것은 효율적인 문제 풀이이다.

선(先) 꼬리의 법칙

- 1) 지문 전체를 1/4 정도로 분할한다.
 - 2) 지문에서 끝 부분(4/4)을 먼저 읽는다.
 - 3) 지문 끝 부분과 관련된 선지를 찾는다.
- ▶ 지문 끝 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있을 가능성은 다른 부분보다 3 배 이상 높다.

【 1 ~ 2 】 다음 꼬리 부분에 집중하며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13 수능 |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퍼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

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다음 논증을 보자.

- (ㄱ)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 (ㄴ)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 (ㄷ)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ㄴ)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ㄴ)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 ②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항상 참이다.
- ③ 치밀하게 관찰한 후 도출된 귀납의 결론은 확실히 참이다.
- ④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연역의 결과이다.
- ⑤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는다.

02 윗글로 미루어 볼 때,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충분한 관찰에 근거한 지식은 반증 없이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
- ②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라.
- ③ 실패한 지식이 곧 성공적인 지식임을 명심하라.
- ④ 수많은 반증의 시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
- ⑤ 과학적 지식을 귀납 논증으로 정당화하라.

※ 【선(先) 꼬리】의 유형으로 1 + 1 = 2 문제를 동시에 해결!!!

두 문제 모두 정답의 근거를 **마지막 단락**에서 찾을 수 있다. 꼬리 부분만 따로 살펴보자.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01

관련지문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
정답	⑤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 를 낳는다.

지문에서 **경험적인 반증이 불가능한 지식**은 선지 ⑤의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과학적인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또 지문에서 ‘**비판하다**’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서술어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문제를 낳는다고** 한 ⑤가 정답이다.

02

관련지문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 하려는 노력을 진행
정답	②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라.

포퍼의 견해를 마지막 지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 한다는 내용이 선지 ②에서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라고** 거

의 그대로 나타나 있다.

출제자는 지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면 답이 쉽게 노출되어서 다음과 같이 다른 표현을 썼다.

지문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
정답 ②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

※ 보편적인 문제풀이 방법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발문읽기 ⇒ 각 선지내용확인 ⇒ 지문 첫 단락부터 읽기

⇒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 나오면 비교해보기 ⇒ 정답 및 오답 판정

위와 같이 보편적인 방법으로도 정답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남들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 꼬리 부분에 답의 분포가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답이 되는 핵심(주제) 지문이 꼬리 부분에 많이 놓여있다. 그리고 출제자는 그 핵심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많이 만든다. 만약 세트 형(보통 2~4문제)문제에서 지문의 핵심과 관련지어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면 이는 지문의 핵심을 벗어나는 바람직한 문제구성은 아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가장 정답의 분포도가 높은 꼬리 지문을 먼저 보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풀이의 전략이다.

다음은 꼬리 지문만으로 3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유형이다.

【 3 ~ 5 】 꼬리 지문에 집중하며 물음에 답하시오.

| 2008 9월 평가원 |

인간 사회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기술은 산업혁명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에 따라 기술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어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도 기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등장한 국가 기술 정책의 수단이 기술 영향 평가(technology assessment)이다. 기술 영향 평가는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다음,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창기의 기술 영향 평가는 이미 개발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평가하고 처방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평가와 처방은 기술에 대한 ‘통제의 딜레마’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통제의 딜레마란, 비록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어떤 기술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지라도, 그 기술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딜레마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통제의 딜레마로 인해 사후적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을 통제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기술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 변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전적이고 과정적인 기술 영향 평가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기술 변화의 내용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술사회학적 인식이 그 배경이 되었다. 이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 개발의 과정에 초점을 두으로써 기술 통제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기술 영향 평가에 비해 좀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는 통제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했는가? 이 질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방향은 불확실성이 많아 사전적이고 과정적인 평가조차도 기술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혹 잘 예측하여 기술 통제를 위해 적절한 기술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이 기술 영향 평가는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03 글쓰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기술과 사회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이다.
- ② 과학적 기술 예측은 기술 통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 ③ 기술 발전의 방향을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 ④ 기술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기술 영향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04 ‘통제의 딜레마’ 로 야기된 상황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은?

- ① 비디오테이프에는 베타 방식과 VHS 방식이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시장에서는 후자가 선택되었다.
- ② 구소련 체르노빌 핵 발전소에서는 작업자들이 원자로의 기계적 결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방사능이 누출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 ③ 홍수 방지를 위한 댐의 규모를 정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했다. 하지만 규모에 따른 홍수 방지 효과를 잘못 계산하여 결국 홍수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 ④ 개발이 거의 완료된 어떤 청정 에너지 기술이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된 까닭에 중단할 수 없었다.
- ⑤ 1986년 미 항공 우주국은 우주선 로켓 부스터의 접합부를 밀폐하는 오링(O-ring)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허용 범위 이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바람에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05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현상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어떤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평가하고 있다.
- ③ 어떤 현상의 문제점을 상반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절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④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정하고, 각각의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꼬리 지문을 따로 살펴보자.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는 통제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했는가? 이 질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방향은 불확실성이 많아 사전적이고 과장적인 평가조차도 기술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혹 잘 예측하여 기술 통제를 위해 적절한 기술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이 기술 영향 평가는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03

근거지문

설혹 잘 예측하여 기술 통제를 위해 적절한 기술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정답

② 과학적 기술 예측은 기술 통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지문에 의하면 과학 기술을 잘 예측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기술 예측이 기술 통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선지 ②는 적절하지 않다.

다음 4번 문제 정답의 근거가 되는 지문이 3번과 동일하다. 꼬리 지문의 한 문장으로 두 개의 문제가 풀리는 셈이다.

04

근거지문

설혹 잘 예측하여 기술 통제를 위해 적절한 기술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정답

④ 개발이 거의 완료된 어떤 청정 에너지 기술이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된 까닭에 중단할 수 없었다.

지문에 의하면 과학 기술을 잘 예측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선지 ④의 청정 에너지 기술이 예측과는 달리 의도하지 않게 환경 오염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아 ‘통제의 딜레마’ 의 예로 볼 수 있다.

05

근거지문

이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는 통제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했는가? 이 질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정답

② 어떤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평가하고 있다.

지문에서 통제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했는가? 를 통해 이 문장 이전에 통제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쓴이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통제의 딜레마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평가한다는 선지 ②가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다.

※ 선 꼬리에 초점을 둔 발문 유형!!!

낱말 핵심, 요지, 논지 등은 지문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낱말이다. 아래와 같이 이 말들이 발문에 나타나면 정답은 지문의 주제와 반드시 결부되기 때문에 더욱더 꼬리 지문부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 위 글의 **핵심 주장**은? (2004 수능)
- *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0 수능)
- * 윗글의 **논지**에 가장 가까운 것은? (1999 수능)
- * 위 글에서 글쓴이가 다룬 **핵심 문제**로 알맞은 것은? (2005 수능)
- * 위 글의 글쓴이가 상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8 수능)
- * 다음은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 글의 **핵심**에 가장 가까운 것은? (1997 수능)
- * 위 글의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로 알맞은 것은? (2014 예비)
- * 위 글의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로 알맞은 것은? (2011 6월 평가원)
- * (나)의 글쓴이가 ‘좋은 시를 쓰는 법’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할 때, 청중들에게 해 줄 **핵심적인 권고**는? (2004 9월 평가원)
- * ‘문화 영역의 세계화’ 와 관련된 표어를 만들었다. 윗글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1999 수능)